



# 광주시향과 ‘오케스트라 올림픽’ 즐겨볼까

### 내달 1-3일 광주예당서 특별기획 키즈콘서트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오케스트라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키즈콘서트로 어린이 관객과 만난다. 신비로운 소리를 찾아 떠나는 악기 탐험을 시작으로, 악기들이 용감한 선수가 돼 달리는 흥미진진한 ‘오케스트라 올림픽’이 펼쳐진다.

#### 연주·해설로 악기 소리, 역할 익히며

#### 클래식 음악 이해하는 참여형 무대

오는 5월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광주시향의 2026 GSO 기획 키즈콘서트 ‘오케스트라 게임’이 개최된다. 공연은 1일 오후 7시30분, 2일 오전 11시·오후 3시, 3일 오후 3시 총 4회 진행된다.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된 ‘오케스트라 게임’은 광주시향의 연주와 함께 지휘자 김영연, 나레이터(해설자) 나용준이 참



광주시립교향악단



지휘 김영연



해설 나용준

여한다.

이날 해설을 맡은 나용준은 클래식의 즐거움을 전하고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 연주와 해설로 대중들과 만나는 트럼펫 연주자이자 콘서트 가이드다.

오케스트라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관객과 어린이들에게 음악의 매력을 전달하고, 나레이션 등 더해 보다 생동감 있게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연은 ‘오케스트라를 알아가는 과정’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구성했다.

첫 무대인 벤저민 브리튼의 ‘관현악 입문 작품’은 악기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각 악기의 소리와 역할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곡이다. 이를 통해 관객은 오케스트라의 구성과 악기 소리의 차이를 이해하고,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어지는 그레고리 스미스의 ‘오케스트라 게임’은 ‘오케스트라 올림픽’이라는 설정으로 진행된다. 무대 위 오케스트라와 함께 게임을 하듯 음악을 즐기는 구성으로 리듬과 연주 방식, 음악의 빠르기와 션여림 등 다양한 요소의 변화를 느끼며 음악과 악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각 악기의 음색과 역할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이 작품은 관현악기와 타악기가 올림픽 종목처럼 등장해 각 악기의 역할과 조화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나레이션이 더해져 관객과의 소통을 이끌며, 함께 웃고 즐기는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된다.

공연은 약 60분 동안 이어지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구성으로 클래식 입문자들이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향은 매년 가정의 달에 키즈콘서트를 선보이며 가족 단위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 왔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한 ‘음악 경이장’으로 가족 관객들을 초대한다”며 “이번 공연이 금메달처럼 반짝이는 마법 같은 시간을 선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연은 광주예술의전당 또는 예스24티켓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전석 1만 원이다. 관람은 7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 〈제55강〉 13. 천화동인(天火同人) 中

동인괘 초구의 효사는 ‘동인우문, 무구’(同人于門, 无咎)。 즉 ‘뜻이 같은 사람들이 문 밖에 모였으니 허물이 없다’는 뜻이다.



초효는 동인의 첫 단계로서 양위에 양효가 있으니 강의(剛)한 인물이다. 그러나 구사와 응하지 못하니 권력의 배경이 없는 사람으로 공익을 위해 문 밖의 동지들을 규합하고 있다. 이를 단전(象傳)에서는 ‘동인우야’(同人于野)라 하고 상전(象傳)에서는 ‘출문동인’(出門同人)이라고 말한다.

초효는 아직 세상에 나타날 정도는 아니니까 문 밖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때다. 즉, 뜻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함을 그들로부터 배워 고치고 노력하면 형통한 때이고 초효이니 협동의 길로 들어가 배워려는 시작이다.

집안에 갇혀 있으면 뜻을 같이하고 협력할 수 없으니 자기 스스로 밖으로 나가 뜻이 같은 사람들을 찾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문야(門野)요, 출문(出門)이다. 초효가 변하면 내괘가 간산(艮山)이니 문이라고 취상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구하러 나가는 처음이 문이고 안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면 적응이 어렵고 위험하니 먼저 뜻이 같은 사람과 친하게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바로 육이다. 그래서 상전에서 ‘문 밖으로 나가 뜻이 같은 사람과 친교하니 어찌 누가 허물이 있겠는가’라고 해 ‘출문동인 우수구야’(出門同人 又誰咎也)라 말한다. 이때는 문 밖으로 오고가는 시기이나 입문(入門)하는 시기이다.

때로는 그 반대로 직장을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서로 힘을 모아 협력하므로 이뤄지는 결과는 좋다.

점사에서 득괘해 동인괘 초구(《각주=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초구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내대에 들어가 승천할 여지가 있다(則入內臺而陞達有地/즉인내대이승천유기). 선비는 학문에 나아가 등천할 기회가 있다(則出學問而登薦有機/즉출학문이등천유기). 서속은 마음을 합하고 뜻을 같이하여 일을 하면 경영에 획리한다(則協心同志 而其事而經營獲利/즉협심동지 이기사이경영획리). 혹 집을 나가 원형하거나 혹은 문호를 수조하며 혹은 문에 타문에 있을 자이다(或出家遠行 或修進門戶 或身在於他門/혹출기원형혹수조문호혹신재타문))를 얻으면,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시작부터 바로 육이와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독선, 고집, 거만함을 버려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널리 구하고 좀 더 능력있는 사람을 찾아 협력과 조력(助力)을 구해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가면 공을 얻을 수 있고 출사해 등용될 기회가 열리는 때다. 이 시기에는 외톨이로 있으면 고립돼 버리니 독선과 고립과 아집을 절대 버려야 한다.

변(《각주=변의 의미는 일의 결과의 길흉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지만, 변과로 변해(變)의 의미에 해당하는 우려스러운 일고집, 온둔을 주의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천산둔(天山澌)해 홀로 은둔해 버리거나 독선에 빠지거나 남을 조소(嘲笑)하는 거만한 태도를 갖기 쉬운 때이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변괘의 의미이다.

따라서 사업, 지망, 취업 등은 경쟁자가 많지만 협력자(六二)를 찾아 진심으로 신뢰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훈인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상대방의 상대가 되지 못하니 포기하는 편이 낫고 잉태는 포괘(包卦)의 상이니 임산(臨産)이나 초기라면 유산의 우려(變大翼)가 있다. 기다리는 사람은 동료들과 함께 돌아올 수 있고 가출인은 동행자가 있

나 변괘가 대손(大翼)의 상이니 시골을 향해 갔으나 돌아오는 힘들며, 분실물은 아직은 집 안에 있는 듯하나(艮山) 도실(盜失)돼 찾기 힘들다(變難). 병은 각기병, 보행의 어려움, 유행성 감기 등이고 병세는 동인괘가 귀환괘이니 몸이 점차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워진다.

‘모인의 운세 여하’를 입서해 초구를 얻은 ‘실절에’에서 접근하기를 ‘지금은 문을 열고 나아가 뜻이 같은 사람들과 사귀어 같은 길로 나아가는 때이니 사견(私見)을 버리고 정직하게 교제 처신하면 크게 인망(人望)을 얻어 입신출세할 수 있다’고 해 역시 그러했다. 있는 자리에서 나와 새롭게 교류를 해야 하니 현재의 자리와 직장을 버리게 되나 결과는 더 좋아진다.

동인괘 육이의 효사는 ‘동인우중, 린’(同人于宗, 吝)이다. 즉 ‘문중의 사람들이 남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자기네를 끼리만 뜻을 같이 하니 인색하다’는 뜻이다.

이효는 음위 음효로 유순중정하고 강건중정의 구오와 상응해 상하괘가 서로 응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러나 대동천하(大同天下)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인괘에서 자기들끼리 해먹는 가족주의나 친족주의는 절대 배제돼야 한다. 따라서 문중 내에서 동지를 규합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吝)이다.

초효는 밖으로 향하는 시작으로 ‘문’이라는 사(辭)가 있었지만, 육이는 ‘종린’(宗吝)이라고 말하는데 ‘종’(宗)이란 자기와 같은 종족, 동료라는 뜻이고 내괘의 이효는 초효, 삼효와 함께 이화(離火)괘를 구성하고 있는 친비의 동료를 말한다. 육이는 초구를 타고(乘) 구삼을 이어가고(承) 있어 초효와 삼효를 동족이라고 본다. 구오와 중정(中正)을 얻어 상응(相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효와 삼효만을 동족으로 보고 교류하니 인색하다. 즉 동인은 큰 뜻을 품고 문 밖으로 나가서 공명정대하게 대의(大義)를 위해 동인해야 하는데 동족인 자기 문중 식구들끼리만 동인하니 인색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전에서는 ‘남과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한다는 것은 도가 인색함’이라고 해 ‘동인우중 린도야’(同人于宗 吝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자기와 친한 사람들과 친밀하고 남에게는 배타적이다. 즉 끼리끼리 놀고 남에게는 인색하다. 자기 분야의 일과 사업을 자기들끼리만 하게 된다. 동인의 시기에는 천하의 명명을 밝혀 나아가야 할 때이므로 대중의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서속을 들어 동인괘 육이(《각주=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육이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지위가 국한된 작록이 낫지 못하다(則局於地位 而爵祿不廣/즉국위지위 이작록불광). 선비는 소시에 은퇴로 내시급은 어렵다(則利於小試 而飛黃難爲/즉이우시 비비황난위). 서속은 일은 많으나 정하지 못하니 혹은 종족, 봉우와 화목치 못하고(則事多不定 或宗族朋友不睦/즉사다부정혹종족봉우불목). 혹은 저쪽만 사랑하고 이쪽을 미워해 시기를 날마다 불러들이며(或彼愛此惡 而猶忌日招/혹피애차오 이시기일초). 혹은 가까운 이와는 합하고 먼 이와는 시비가 날마다 일어난다(或近合遠違 而是非日起/혹근합원외 이시비일기))를 얻으면, 자신의 취미나 취향 등 편협된 기준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며 능력있는 사람을 소외시켜 불평 불만이 많고, 그로 인해 일을 실패하기 쉽다.

지금도 동족들이 끼리끼리 모여 힘을 합쳐 나아가자 공평을 잃어 내부적으로 화목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

이다.

사람의 성격을 점했다면 이 사람은 공평무사(公平無私)하지 못하고 편협된 사고와 기준으로 판단해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성격이다. 따라서 사업, 지망, 취업, 거래 등은 공평무사한 사람을 얻기 힘들어 실패하기 쉽고, 주로 사적관계에 있는 자로만 인적 구성이 이뤄져 오래가지 못한다.

훈인은 편협된 사고와 취미, 기호 등으로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잘 추진되지 않고 잉태는 무사하나 생생야(同人)일 가능성이 높다. 기다리는 사람은 친척, 형제라면 돌아오고 가출인은 친구 등과 가출했지만 후회해 돌아오며 분실물은 같은 모양의 물건 속에 섞여 있거나 가내(家內)의 사람들에게 물어 찾을 수 있다. 병은 전염병, 고열, 식사불가, 대변불통, 폐병 등으로 본괘는 귀환괘, 변괘는 중괘가 되니 상당히 위험하다.

‘실절에’로 일본 전국시대에 역점을 배우고 군주에게 돌아가고자 ‘자신의 복귀시기와 벼슬 위치’에 대해 ‘동인(同人) 이효동’을 얻고 접근하기를, ‘동인괘는 중건전에서 비롯된 패로서 군신상우(君臣相親)의 상’이다. 육이가 변해 다시 원괘인 중건전으로 돌아가니 2년 후 복귀하고 육이는 구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 군주로부터 다소 먼 변방의 한 곳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점단해 그러했다.

‘모인의 사업은 여하’를 입서해 육이를 얻은 ‘실절에’에서 접근하기를, ‘동인괘는 뜻이 같은 사람이 모여 힘을 합쳐 큰 일을 도모해 가는 괘인데 육이에서는 그 뜻이 종족(宗族)끼리만 모여 자기들끼리만 해나간니 그도(道)가 인색하다고 한다. 실은 즉, 그 사업은 가족, 친척들이 모여 하고 있는 회사였다. 그렇다면 사업이 편협된 기준에 의해 추진되고 공평을 잃게 돼 친목하지 못해 불화 반목이 생길 수 있으니 이를 조심해 추진하면 많은 사업성과를 올릴 것’이라고 점단했다.

동인괘 구삼의 효사는 ‘복용우망 승기고능, 삼세불흥’(伏戎于莽 升其高陵, 三歲不興)이다. 즉, ‘군사를 우거진 풀 속에 매복시키고 높은 언덕 위에 올랐으나 삼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삼효는 위태 불안한 자리에 양위에 양효가 있어 매우 양강한데 중을 얻지 못해 하괘의 최상위의 높은 곳에 있는 난폭한 자이다. 상구와 응하지 못해 협력을 얻지 못하고 육이와 친비하러 하지만, 이미 육이는 구오의 사람이 돼 있다. 구삼이 천하의 동인을 모으기 위해서는 구오와 육이의 연합을 균열시켜야 하니 구오를 공격해야 한다. 그러나 구오를 정당한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복용우망과 같은 매복 작전을 쓴다.

구삼은 육이와 친비해 육이를 얻으려는 욕심이 너무 강하다. 그러나 육이의 정응(正應)은 군(君), 부(夫)인 구오일 뿐이다. 아무리 구삼이 육이를 취하고 싶어도 육이에 응하는 효는 구오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구삼은 내괘 이화(離火)의 양위(陽位)에 양효로 양의 강한 세력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먼저 경쟁 상대인 구오를 무너뜨리고자 군사를 숲 속에 매복시켜 놓았는데 이를 ‘복용우망’(伏戎于莽)이라 했고, 또한 적인 구오의 동태를 살피고 보기 위해 높은 언덕에 오른다는 의미로 ‘승기고능’(升其高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오는 육이의 정응이고 강건중정의 효이므로 무너뜨릴 기회가 구삼에게는 오지 않는다. 이를 효사에서는 삼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일어날

기회가 없다고 해 ‘삼세불흥’(三歲不興)이라 했다.

상전(象傳)에서는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을 어찌 행할 수 있겠는가’라 해 ‘안행야’(安行也)라 말한다. 즉, 실행할 수 없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상으로 보면 내괘 이화는 갑옷을 뜻해 여기서 군사 ‘용’(戎)을 취하고, 이·삼·사효의 호괘 손(巽)과 구삼이 변해 내괘 진(震)에서 풀, 숲이 우거진 ‘망’(莽)을 취했다. 또한 손(巽)은 ‘앞드려 숨어 들어간다(伏入)’는 의미에서 앞드려 ‘복’(伏)을, 내괘 진괘의 극의 위치이니 고능(高陵)이라고 했다.

이때는 내부 방해자가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안되고 시기를 조용히 참고 기다려야 한다. 주위를 잘 살피고 숨어야 하는 상황이다.

점사에서 득괘해 동인괘 구삼(《각주=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구삼을 만나면 벼슬한 자는 실직을 막아라(則防失職/즉방실직). 선비는 높이 오를 조치가 있다(則有升高之兆/즉유승고지조). 서속은 부를 잃을 상이니 민형사의 환이 있다(則有喪親難訟之患/즉유상친옥송지환))를 얻으면, 사람의 성격으로는 권모술수에 뛰어어나고 음험하며 잔포와 계략에 능한 사람이다. 따라서 사업, 거래는 사기될 수 있고 취업은 계약을 써도 안통하며 지망은 삼년불흥이니 이뤄지지 않는다.

훈인도 옳지 않은 흥의(凶意)가 숨어있고 잉태 또한 불의(不意)의 자식이어서 모태의 고민으로 난산(難産)이다. 기다리는 사람은 올 기미가 없고 가출인 또한 시골로 도망가 오지 않으며 분실물은 숨겨져 있거나 쓸모 없어져 버렸다. 병은 허리, 경련, 대열, 경기(驚氣), 광란(狂亂)으로 치명적이고 재기(再起) 불능이다.

‘모인이 교사 임용시험 합격 여하’를 문점해 구삼을 얻은 ‘실절에’에서 동인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게 아니 경쟁자가 많음을 알 수 있고 구삼을 얻어 효사에 ‘삼세불흥 안행야’(三歲不興 安行也) 즉, ‘삼년이 돼도 일어서 싸울 힘이 없는데 어찌 행할 수 있겠는가’라 했으니 어렵다. 더욱 분발해 공부하면 오히려 때에 합격한다.

또 다른 ‘실절에’로 일본의 수도 동경에서 실시하는 ‘시험 당락 여하’에 대한 문점을 받고 득괘해 ‘동인(同人) 삼효동’을 얻고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동인괘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물은 육이다. 육이는 구오의 것이니 구삼은 안된다. 그러나 구삼은 육이의 응효(應效)는 아니어도 비효(比效)의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구오의 수도 동경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삼효에 삼세불흥(三歲不興)이라 했으나 삼년이 걸려도 합격이 어렵다. 따라서 시험에 합격은 어렵다고 판단해야 하나,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육이의 지방 현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 까닭은 구삼은 육이와 친비(親比)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청(縣廳)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했다. (가동대학(加藤大學)점예)

변통에 능하고 경험 많은 ‘가도 다이카구(加藤大岳)’의 실력이 참으로 부럽다.

점사에서 득괘해 동인괘 구삼(《각주=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구삼을 만나면 벼슬한 자는 실직을 막아라(則防失職/즉방실직). 선비는 높이 오를 조치가 있다(則有升高之兆/즉유승고지조). 서속은 부를 잃을 상이니 민형사의 환이 있다(則有喪親難訟之患/즉유상친옥송지환))를 얻으면, 사람의 성격으로는 권모술수에 뛰어어나고 음험하며 잔포와 계략에 능한 사람이다. 따라서 사업, 거래는 사기될 수 있고 취업은 계약을 써도 안통하며 지망은 삼년불흥이니 이뤄지지 않는다.

훈인도 옳지 않은 흥의(凶意)가 숨어있고 잉태 또한 불의(不意)의 자식이어서 모태의 고민으로 난산(難産)이다. 기다리는 사람은 올 기미가 없고 가출인 또한 시골로 도망가 오지 않으며 분실물은 숨겨져 있거나 쓸모 없어져 버렸다. 병은 허리, 경련, 대열, 경기(驚氣), 광란(狂亂)으로 치명적이고 재기(再起) 불능이다.

‘모인이 교사 임용시험 합격 여하’를 문점해 구삼을 얻은 ‘실절에’에서 동인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게 아니 경쟁자가 많음을 알 수 있고 구삼을 얻어 효사에 ‘삼세불흥 안행야’(三歲不興 安行也) 즉, ‘삼년이 돼도 일어서 싸울 힘이 없는데 어찌 행할 수 있겠는가’라 했으니 어렵다. 더욱 분발해 공부하면 오히려 때에 합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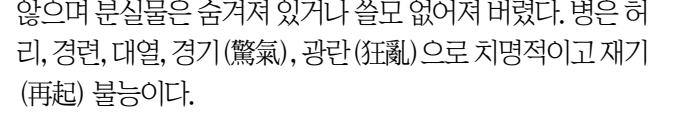
또 다른 ‘실절에’로 일본의 수도 동경에서 실시하는 ‘시험 당락 여하’에 대한 문점을 받고 득괘해 ‘동인(同人) 삼효동’을 얻고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동인괘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물은 육이다. 육이는 구오의 것이니 구삼은 안된다. 그러나 구삼은 육이의 응효(應效)는 아니어도 비효(比效)의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구오의 수도 동경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삼효에 삼세불흥(三歲不興)이라 했으나 삼년이 걸려도 합격이 어렵다. 따라서 시험에 합격은 어렵다고 판단해야 하나,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육이의 지방 현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 까닭은 구삼은 육이와 친비(親比)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청(縣廳)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했다. (가동대학(加藤大學)점예)

변통에 능하고 경험 많은 ‘가도 다이카구(加藤大岳)’의 실력이 참으로 부럽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요일)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접전문강사 양성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요일)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접전문강사 양성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요일)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접전문강사 양성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요일)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접전문강사 양성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요일)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접전문강사 양성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요일)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접전문강사 양성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요일)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접전문강사 양성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요일)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접전문강사 양성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요일)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접전문강사 양성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요일)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접전문강사 양성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요일)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접전문강사 양성